

사회 >> 3면
 지인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 피해자 속출

기획 >> 4면
 대학가를 위협하는 사이버, 종교의 탈로 감춰진 그 실체

현장르포 >> 5면
 신스토랑, 가을의 맛을 찾아서

제583호
 2025년 1월 17일(금)

볼거리, 즐길 거리 가득했던 2024 청야체전... 승자는 누구?



지난 9월 23일,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4 청야체전 개막식 '日就月將:일취월장'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제52대 한숲 총학생회(이하 한숲)는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 이날 하루 동안 학우들은 총학생회 부스에서 서경포탈과 신분증을 제시하면 생맥주를 받을 수 있었다. 추천을 통해 편의점 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업로드 이벤트와 토너먼트 형식의 팔씨름 행사도 진행됐다. 이 외에도 학우들의 흥미를

돌을 동아리 및 소모임, 학부의 공연과 플라마켓이 준비돼 있었다. 해인관 앞 특설무대에서는 'SDR', '그라미' 등의 동아리, '철인 28호'와 같은 소모임의 무대와 실용무용 전공 및 실용음악학부 학우들의 무대까지 총 11팀의 공연이 펼쳐졌다. 수제향수, 타로, 캐릭터 상품, 의류 및 액세서리 등 아홉 가개의 지나가던 학우들의 발길을 이끌기에 충분했다. 닭강정, 야기소바, 소고기 직화초밥, 젤라토 등 특색 있는 10가지의 푸드트럭도 개막식에 흥을 더했다. 24일부터 27일까지는 4일간 청야체전(이하 체전)이 진행됐다. 총 8개의 종목으로 이뤄진 이번 체전에는 족배구가 폐지되고 아케이드 형식의 '판뒤집기' 종목이 신설됐다. 그 외 종목으로는 족구, 피구, 농구, 발야구, 풋살, 이어달리기, 줄다리가 운영됐다. 풋살은 풋살 파크, 농구는 수인관에서 열렸다. 두 종목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스포츠센터에서 진행됐다. 아울러 한숲은 '서경777' 순위 맞추기 이벤트를 개최해 학우들이 체전을 더욱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3일 차, 26일 목요일에는 급작스러운 우천으로 인해 일부 경기가 지연됐다. 변경되는 경기 일정은 학과별 단독방에 곧바로 공지됐다. 시상식은 마지막 날인 27일에 진행됐다. 군사학과와 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과가 공동 종합 1위를 차지하며 각각 상금 500,000원을 수상했다. 그 뒤를 이어 경영학부가 종합 3위에 올라 상금 200,000원을 수령했다. 종목별로 족구와 피구는 경영학부, 농구와 풋살은 군사학과, 발야구·줄다리기·판뒤집기·이어달리기는 스포츠엔터테인먼트학과가 우승을 차지했다. 한숲 김중휴 총학생회장(컴공, 21)은 "체전이 무사히 끝나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번 체육대회는 모든 학우 다 같이 즐기고 소통한 뜻깊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우들에게 "무더운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준 덕에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이번 체전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 서로를 격려하며 협동과 화합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행사를 통해 본교가 더 하나 되고, 학생 간 교류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체전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함께해 준 모든 심판진과 스태프분들께 깊은 감사사를 전한다"며 말을 마쳤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단돈 3,000원의 행복, '서경 아나바다 운동' 바자회 성료



지난 9월 3일부터 5일, 청운관 1층에서 '서경 아나바다운동' 바자회가 열렸다. 한숲 총학생회가 주관한 본 행사는 다양한 전공 및 교양 도서를 단돈 3,000원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일정 동안 120여 명의 학우들이 자신의 교재를 기부해 130권이 넘는 책이 판매됐다. 바자회에 참여해 전공 도서 '아동수학지도'를 구매한 아동학과 김나연 학우는 "3,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교재를 구하게 돼 만족스럽다"며, "열심히 공부했던 흔적이 남겨있어 비법서로 유용하게 쓰일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숲 총학생회는 지난 10월 5일 아나바다 운동을 통해 모인 수익금 391,100원을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 '서경대학교 학우 일동'으로 기부했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서경대학교, '2024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 활발히 운영

'인생나눔교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전국 5개 권역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공존, 공생, 공유, 공감을 키워드로 인문정신문화를 위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에서 3천 9백여 명(2021년 기준)의 인생 선배들이 참여하고 있다. 인생나눔교실은 현재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의 전국 단위 조직을 통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인생나눔교실 사업은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과 '삼삼오오 인생나눔활동', 두 가지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서경대학교는 수도권 지역 주관처로서 7년째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2024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 사업의 일환인 '우리동네 인생나눔교실'의 시작을 알렸다. 4년째 진행 중인 '우리동네 인생나눔교실'은 수도권 지역의 특색을 담아낸 사업으로,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에서 3년간의 활동을 경험한 졸업 멘토가 거주지역 내 멘티 기

관을 직접 발굴 및 방문해 지속적인 인문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자기 주도형 인문 멘토링 지원사업이다. 면접을 통해 선발된 멘토는 8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최종 선발된 멘티 기관을 직접 방문해 총 50회차 내외의 인문 멘토링을 진행했다. 주최 측은 인생나눔교실 졸업 멘토가 자기 주도적 인문 멘토링을 직접 기획해 보는 경험을 통해 인생나눔교실을 졸업한 후에도 거주지역 내 인문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24 찾아가는 인생나눔교실'의 또 다른 일환인 '인생삼모자 인생나눔교실'은 지난 9월 10일, 11일 양일간 '네트워킹 데이'를 진행했다. '인생삼모자 인생나눔교실'은 인생나눔교실 참여자 간의 소통을 위한 네트워킹 플랫폼으로서 인생나눔교실 속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더 나은 멘토링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한편,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2024년 찾아가는 인생나



전준혁 기자
 (nicejackkyhu@naver.com)

▲ 출처 : 서경대문화예술센터



서경대 풀잎봉사단, '우리 동네 성북구를 푸르게 푸르게' 프로젝트 성료

성북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환경 보호 체험 부스·성북천 플로깅·포스터 캠페인 봉사활동 기획해



서경대학교 풀잎봉사단이 성북구자원봉사센터와 함께하는 '청년이 만드는 세상' 기획 봉사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2024 성북구 기획봉사 프로젝트 - 청년이 만드는 세상'은 성북구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관심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봉사나 캠페인의 형식으로 기획해 문제를 해결하는 약 6개월의 장기 프로젝트다.

성북구자원봉사센터 주관 아래 지난 5월부터 봉사 기획을 위한 사전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봉사 진행에 사용되는 물품 및 비용을 지원받았다. 풀잎봉사단 단원들로 구성된 '풀잎' 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가 아동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리고, 부스 및 플로깅, 캠페인 활동으로 아동들이 환경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직접 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소속 단원 중 송민경(경비 21), 유지우(아동

20), 윤다인(경영 22), 지연우(글비 23) 학생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지난 9월 8일에 풀잎 팀은 성북구 아동 청소년 대상 환경 보호 체험 부스를, 9월 29일에는 성북천 플로깅 활동을 펼쳤다. 10월 중에는 서경대 및 성북구 공공장소에 환경 보호 캠페인 포스터를 부착했다. 풀잎 팀은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참여자, 참여 방식 및 물품 준비까지 수습 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획했다.

풀잎 팀은 성북구자원봉사센터 인근 간대어린이공원에서 환경 보호 체험 부스를 열고 약 세 시간 동안 부스를 운영했다. 팀원들은 성북구 거주 아동·청소년 약 50명을 대상으로 지구 비누 만들기 체험, 환경퀴즈 골든벨, 나만의 환경 작품 전시회를 열어 참여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왔다. 부스에서는 간식 세트와 주점 톨렛까지 더해져 아이들로 하여금 참여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이끌었다. 이날 완성된 아이들의 손글씨와 그림이 담긴 작품 일부를 추후 환경 보호를 촉구하는 포스터 제작에 사용해, 쓰레기를 무작위로 버리는 것을 방지하는 주도적 캠페인성 활동까지 이어지도록 했다.

성북구 거주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플로깅 활동은 성북천 일대의 3개 코스를 돌며 쓰레기를 줍고, 각 코스에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면 봉사 시간을 인정해 주는 형태로 실시했다. 바람파당고, 보문3고, 보문동 주민센터에서 환경퀴즈, 쓰레기 인증 미션, 인증샷 소감 제출 미션이 차례로 진행됐

다. 참여 아동의 어머니 이 모 씨는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고, 봉사라는 생각보다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 어색함 없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서경대학교 풀잎봉사단은 두 행사와 포스터 캠페인을 마친 후 최종 활동공유회까지 전원 참석해 기획 봉사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장식했다. 한편 11월 23일, 풀잎봉사단은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김장 봉사 활동을 통해 성북구 지역 주민들에게 나눔을 전파했다.

유지우 기자
(milkyway_85@naver.com)

"경쟁이 아닌 화합"... 서경 X 상명 학술 교류전 '도전! 골든벨' 개최

지난 9월 28일, 서경대학교 X 상명대학교 학술 교류전 '도전! 골든벨'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경대학교 제26대 '우연' 사회과학대와 상명대학교 제30대 '조인' 인문사회과학대 학생회의 협업으로 이뤄진 총상금 100만 원의 학술 교류전이다.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각 학교에서 희망 학우들에게 선착순 40명 사전신청을 받았다.

학술 교류전은 상명대학교 미래백년관 B1F 밀레니움에서 진행됐다. 참가 학우들은 모티브가 된 KBS 방송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에 참여하는 것처럼 빨간 모자와 이름표, 번호표를 배부받았다. 각 조마다 서경대 2명, 상명대 2명으로 4명이 한 팀으로 구성돼 총 8팀이 참여했다.

1부는 골든벨 퀴즈였다. 각 학교에 대한 재지 있는 물품이 퀴즈로 시작해 점차 상식 퀴즈로 본격적인 행사 진행이 이뤄졌다.

영광의 1등은 3조인 (서경)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23학년 유다경, 임휘연, (상명)행정학부 23학년 권세아, 지적재산권학과 23학년 윤호영 학우가 차지했다. 뒤이어 2등은 7조인 (서



경)경영학부 21학년 조은서, 24학년 정가은, (상명)국가안보학과 21학년 황재운, 김동진 학우였다. 3등은 5조인 (서경)경영학부 21학년 최재민, 22학년 이민수, (상명)문헌정보학과 23학년 강덕원, 24학년 김우성 학우였다. 1, 2, 3등 팀들은 각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에 1등을 차지한 3조는 "동료들이 잘해준 덕분이다", "대학 생활의 추억을 쌓고 싶었는데 좋은 교류회 덕분에 타 대학 학생들과도 재밌게 어울렸다"며 소감을 전했다. 2부는 친목 도모를 위한 레크리에

이션이 진행됐다. 학우들은 OX 퀴즈, 단어 맞추기, 속담 이어 말하기, 혼민정음, 인물 맞추기, 밈 맞추기 게임 등을 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1부에 이어 2부 역시 1등을 차지한 3조에 CJ 올리브영 상품권 4만 원권이 수여됐다. 이 외에도 나머지 학우들은 게임과 추첨을 통해 배민 상품권,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오쏘몰 비타민, 스탠리 텀블러, 맥도날드 빅맥세트 등의 상품권을 지급받았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디자인학부 비주얼디자인전공 동아리 VOID, 하계 전시회 '夢유영' 개최



지난 9월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서경대학교 디자인학부 비주얼디자인전공 동아리 'VOID'의 하계 전시회 '夢유영'이 유담관 9층에서 진행됐다.

전시회가 열린 유담관은 작품들을 관람하기 위해 발걸음한 관람객들로 북적였다. 도서관을 이용하려는 학생들도 잠시 멈춰 전시회를 관람하는 모습이였다.

'夢유영'은 '무한한 꿈의 안팎에서 헤엄치는 우리는, 모두 창조자가 된다'는 주제로 기획됐다. 전시에는 VOID 부원 28명이 참여해 저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꿈'을 창의적으로 포스터 디자인, 복디자인, 입체작품 등에 담았다.

작품마다 마련돼 있는 기획 설명서에는 작품 기획 의도와 진행 과정을 작성해 관람객들의 충분한 이해를 도왔다. VOID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비주얼디자인과의 매력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말을 전했다.

신가은 수습기자
(yulyull1214@skuniv.ac.kr)

150분, 풍자와 몰입의 시간... 서경대 공연예술학부 '검찰관' 공연 마쳐



▲ 출처 : 오유지(공연예술학부)

지난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서경대학교 북악관 8층 북악홀에서 연극 '검찰관'이 공연됐다.

검찰관은 비리로 가득한 지방 도시의 관리들이 암행 검찰관이 방문한다는 소문을 듣고, 타지에서 온 하급 관리를 검찰관으로 오해하며 벌어지는 소동을 다루고 있다.

공연 연출을 맡은 오유지(공연예술학부 22학번) 학우와 '시장' 역으로 분한 황현빈(공연예술학부 18학번) 학우의 무대 뒤 이야기를 들어왔다.

Q. 황현빈 학우는 극의 핵심 인물을 연기하며 중간휴식 없이 긴 시간 공연을 소화했는데, 어려움은 없었나.

A(황현빈). 제가 대사를 잘 외우는 편인데 이번에는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간이 촉박하다는 부담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또 코미디라는 극의 특성과 대극장 공연이기 때문에 표정을 일부러 과하게 쓰게 돼 이마와 턱에 큰 통증이 몇 번 있었습니 다. 그럴 때마다 고생하고 있는 팀원들을 떠올리면서 혼자 힘으로 견디는 생각을 했습니다.

Q. 연출자로서 검찰관을 본인만의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부분이 있다면.

A(오유지). 검찰관 원문의 텍스트가 고풍스럽고 어렵게 느껴져 부분적으로 윤색했습니다.

현대에 사용해도 이질감이 들지 않는 말들로 대사를 수정하고, 러시아 작품 특성상 인물들 이름이 정말 길었는데 이를 이름이 아닌 직업으로 불리는 것으로 고쳤습니다. 또 극중 관리들에게서 '얼굴 빼놓으면 줄 모르고 거울만 탄다'는 속담이 떠올라 민화적인 연기와 분장을 희망했습니다.

Q. 공연을 통해 느낀 점은.

A(황현빈). "마지막 독백을 보고 웃을 수 없었다"는 관객의 말이 지금까지 연기를 하며 제가 느낀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시장이 절규하는 모습을 보며 생각에 잠

기기를 바랐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 열심히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은 부족한 모습이 탄로 날까 봐 대는 핑계였다는 것을 이 공연을 통해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저의 부족함을 숨기는데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채워 나가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A(오유지). 공연 마지막 날 가장 앞줄에서 공연을 봤습니다. 무대 위 배우들이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그 인물로 살아 있으려던, 그리고 살아 있던 모습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정기 공연 연출은 항상 꿈꿔온 보직이었지만 처음 맡다 보니 모든 것이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좋아하는 일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팀원들로부터 힘을

얻었습니다. 팀원들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못 했을 것 같아요.

Q. 앞으로의 진로 계획, 혹은 작품 계획은.

A(황현빈). 요즘 제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연기뿐만 아니라 연출을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A(오유지). 작년에 제가 쓴 '추락'이라는 작품을 낭독극 형태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관객들에게 선보이며 큰 기쁨과 해방을 느꼈던 이 작품을 피지컬 씨어터(신체극) 혹은 음악극 형태로 바꾸어 공연해 보고 싶습니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한 눈에 보는 이슈

정치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밀 유출'... 그러나 7년 동안 외부 감사 전무

경제

"창업부터 폐업까지, 무엇 하나 쉽지 않아요"... 전의 잃은 자영업자와 '자영업 폐업자 100만 시대'

사회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가해자로... 지인 답페이크 음란물 합성 피해자 속

문화

2030이 열광하는 '팔이피플'... 거래 피해는 소비자 뭉

연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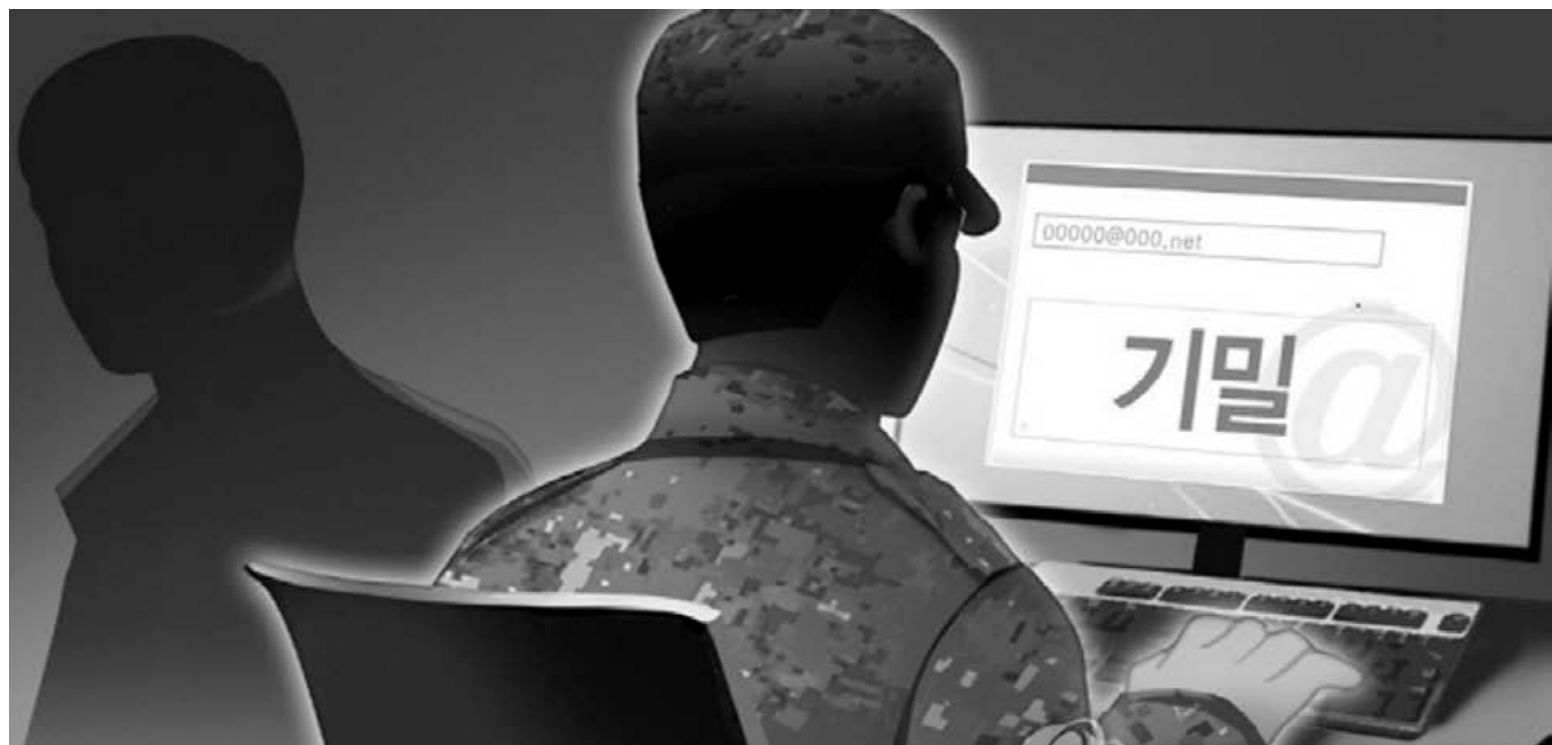
"오래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이순재, 역대 최고령 '2024 KBS 연기대상' 수상

스포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 '대이변'... 이기흥 '3선 연임 실패'

자세히 보는 이슈

국가 안보와 직결된 '기밀 유출' ... 그러나 7년 동안 외부 감사 전무



▲ 출처 : 연합뉴스

지난 6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다수의 '블랙요원 기밀'이 7년에 걸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기밀을 빼돌린 A 씨는 국군정보사령부(이하 정보사) 소속 근무원으로, 과거 군 간부로 첩보 활동을 하다 근무원으로 정보사에 재취직했다. 그는 2017년부터 조선족 중국인 브로커에게 포섭됐으며, 2022년 6월 이후에만 30건의 기밀을 유출했다. 그중 문서가 12건이고 음성 정보가 18건으로, 기밀을 출력하거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유출했다. [출처 : 이투데이]

유출 경로를 알게 된 과정보도 허술하다. 6월 중순, 본국 해커가 북한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하는 과정에서 정보사의 정보작전요원 명단을 북한 측 서버에서 발견해 국군법정사령부(이하 방정사)에 신고했다.

이후 A 씨 개인 노트북에서 정보작전요원들의 명단을 발견한 방정

사는 A 씨를 입건 및 압수수색했다. 한편, 방정사에 입건된 지 한 달 넘도록 A 씨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정보사의 조치 또한 수사를 위한 직무 배제 수준인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18년 국방보안업무훈령 개정으로 외부 기관의 정보사 감사 권한이 사라지며,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현 방정사)의 감사가 정보사의 마지막 외부 감사였다. 정보사가 이를 마지막으로 7년간 외부 감사가 없던 것이 국방부 등을 통해 알려지며 더욱 거센 비판을 받았다.

방정사는 A 씨를 균형법상 일반이적,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및 간첩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군검찰은 방정사 수사 결과를 검토 후 A 씨를 균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간첩죄는 제외됐

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자국의 '적국'에 기밀을 유출했을 때 적용되는데, 여기서 적국은 '북한'을 의미한다. A 씨의 정보 유출과 북한과의 명확한 연계성을 확정할 수 없어 제외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채성준 교수는 "정보사는 대북 정보활동을 하는 군의 핵심정보기관"이라며 "이곳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목숨 걸고 일하는 비밀 요원 관련 내용이 유출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비판했다. 채 교수는 "이런 첩보·공작망은 한 번 구축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 돈이 든다"며 이번 유출로 인해 이 모든 게 붕괴하고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철저한 보안관리가 필요하다"며 "보안방첩기관 간에도 교차확인을 통해 보안 위해 요인이 없는지를

항상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 말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법적 취약성을 꼽았다. 현재 국가기밀 유출 관련 법에는 형법이나 군형법 이외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기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이 있다. 채 교수는 "이 법들은 그에 해당하는 범죄만 특정해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며 "처벌 수위도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갈 수 있는 간첩죄에 비해 낮다"고 말했다. 그는 "법이 허술하니 국가기밀을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어처구니없는 범죄가 발생한다"고 법의 허점을 꼬집으며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창업부터 폐업까지, 무엇 하나 쉽지 않아요"... 전의 잃은 자영업자와 '자영업 폐업자 100만 시대'

'자영업 폐업자 100만 시대'가 도래했다.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그중 외식업체의 상황은 최악이다. 2023년 외식업체 폐업률은 21.52%로 식당 5곳 중 1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 이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2022년도의 평균 폐업률 15%를 뛰어넘은 수치다.

퇴사 후 개인 카페를 창업해 7년간 연남동 골목을 지키던 박 모 씨(36) 역시 지속되는 적자에 결국 2023년 초 가게 문을 닫았다. 박 모 씨는 "그동안 많은 가게가 들어오고 또 없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애정이 깊은 가게였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계속되는 영업 손실에 더는 버틸 수 없어 떠난다"며 한숨지었다.



폐업을 증가의 원인은 다양하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내수 부진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다. 버티다 못한 자영업자들은 결국 대출에 의지했지만, 이마저도 감지 못할 빛이 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말 1조원을 돌파했다. 대출 연체율과 함께 다중채무자 비율도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중채무자 비율은 57%에 달한다. 얽힌 데 얽힌 격으로 은행권은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다.

늘어난 폐업률의 또 다른 이유로 는 SNS 활성화와 쪼아진 유행 주기가 꼽힌다.

이는 외식업계의 상황이 대표적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플랫폼을 통해 국내 미식 유행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 후당 버블터, 달고나, 탕후루, 두

미한 혜택으로 인한 제도 활용 감소라고 풀이했다. [출처: S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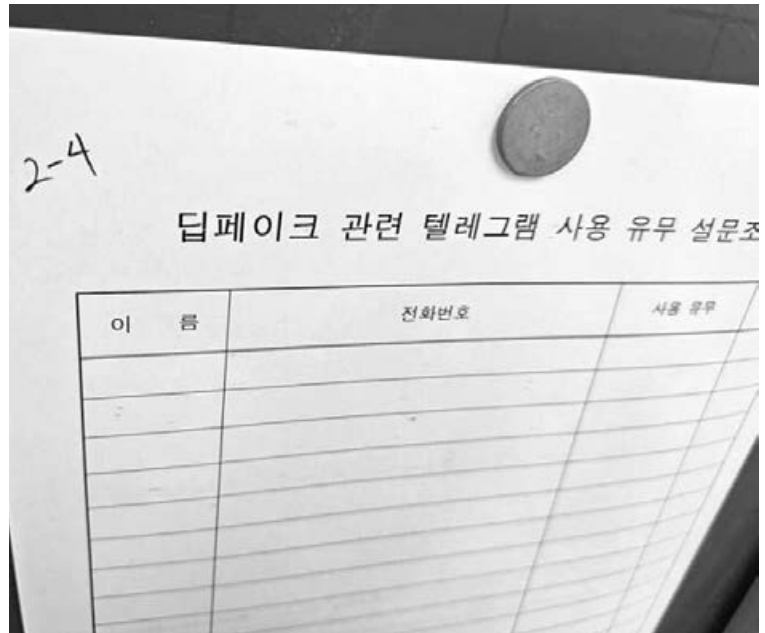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가 지원 사업들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대중 요법일 뿐이라 지적한다.

상표전략연구소 관계자는 "중고등학교나 전문대학에서 미래형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 실패 경험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창업 쓰리 아웃 제도'와 같은 재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피상적 문제 해결을 넘어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 인식 변화를 강조하며 "정부는 창업과 폐업의 반복이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일각에서는 자영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분석한다. [출처: 글로벌이코노믹]

창업, 영업, 그리고 폐업까지. 모든 단계에 있어 국가 차원의 근본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가해자로... 지인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 피해자 속출



▲ 출처 : 아시아 경제

지난 8월 말, X(구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인 딥페이크 음란물 합성 논란'이 공론화됐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제작자에게 지인의 얼굴을 전송해 음란물 합성을 의뢰한다는 것이다.

'딥페이크(Deepfake)'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Pake)'의 결합어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이미지와 영상을 편집하는 기술을 일컫는다. 전 세계적으로 딥페이크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만든 사진과 영상이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고 있던 와중, 전국을 뒤흔든 논란이 터진 것이다.

'겹지방(겹치는 지인들의 얼굴을 합성해 돌려보는 방)'이 개설된 전국 지역별 중·고등학교와 대학교는 약 230개에 이른다. 한 겹지방에 최대 22만 명이 참여한 대화방도 있었다. 피해자는 학생뿐 아니라 군인과 교사, 심지어 가족들까지 그 대상이 됐다.

이에 따라 서울 경찰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74명을 특정해 수사 중임을 밝혔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허위 영상물 집중 TF(프로젝트팀)를 구성해 단속 중이라며 "현재 126건을 수사 중이며 피해자 74명을 특정했다"고 밝

혔다. 그에 의하면 피해자의 연령대는 10대가 51명(69%)으로 가장 많고, 20대가 21명(28%), 30대가 2명(3%)이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중성 모니터링에 착수해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딥페이크 범죄 논란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부분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심각성이 더욱 크다. 학생 피해자들은 본인 사진이 악용되진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에 SNS 계정을 삭제하는 방도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등교 시 가해자와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심지어 피해자인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마저도 미흡한 대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SNS에 "학교에서 여학생들만 따로 강당에 불러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을 주의하라고 교육하고, 남학생들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했다"는 폭로가 올라왔다. 또한 타 학교에서는 딥페이크 사용 유무를 조사하겠다고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으라는 설문지를 돌려 논란이 됐다. 누리꾼들은 "대체 누가 자수하겠냐"며 눈 감고 손 들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에 위치한 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결성된 '여성 혐오 폭력 규탄 공동행동'은 지난 9월 21일 회화역 인근에서 딥페이크 성착취 처벌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약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여성 혐오 범죄가 반

복되고 있다고 규탄하며 가해자들의 처벌을 촉구했다.

경찰청이 텔레그램 측과 접촉해 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 관련 협조를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텔레그램은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무응답해 왔다. 그러나 이번 한국 사태에 대해 텔레그램 CEO 파벨 두르프는 "소수의 이용자가 텔레그램 서비스 전체를 망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한 이용자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한 미국 사이버보안 업체인 '시큐리티 히어로'가 발표한 '2023 딥페이크 현황'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99%)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성년자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9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2030이 열광하는 '팔이피플'... 거래 피해는 소비자 몫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특정 상품의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것을 본적 있는가? SNS를 통해 공동구매를 진행하거나 물건을 파는 인플루언서를 일명 '팔이피플'이라 지칭한다. 전문적인 업체가 아니지만 인플루언서가 진행한다는 점, 공동구매를 통한 가격 할인 등의 이점으로 공동구매를 요청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인플루언서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는 장점만 있지 않다.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재작년 인플루언서는 간장계장 공동구매를 진행했다가 품질 저하와 배송에 따르면, 한국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99%)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성년자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3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9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인 2030 세대를 주목했다. 재작년 이수진 서울대 소비자센터분석센터 연구위원은 "2030세대는 '발견형 커머스', '발견형 쇼퍼'라고 정의했다. 이어 "2030세대는 SNS를 통해 마음에 드는 물건을 구경하다 연동된 시스템을 통해 쇼핑하는 방식"이라 설명했다. 물건 구매 시 인플루언서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중에게 유명한 광고 모델이 아닌 친숙하게 느끼는 인플루언서에 신뢰를 느끼는 2030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밝혔다. 친숙함과 신뢰를 느끼는 것은 인플루언서를 믿고 따르는 '팬덤 소비'로 확장하는 것이다. [참고: 쿠팡뉴스]

앞서 언급한 실례 조사에서 SNS마켓 이용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 중 32.9%(623명)는 피해 경험이 있었다. 피해 유형 중 '허위·과장 광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다이어트 기능이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과장하는 광고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피해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SNS마켓의 대다수는 인플루언서의 계정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DM(다이렉트 메시지), 비밀 댓글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환불을 피해 가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제작 상품은 환불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하는 등 교환이나



▲ 출처 : pixabay

환불이 불가하다는 점을 앞세우기도 한다. 이는 소비자보호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정당한 구매 취소 및 환불 거부"의 피해 유형에 속한다.

결국, 인플루언서를 통한 구매의 피해는 오롯이 소비자 본인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SNS마켓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된 만큼, 허위·과장 광고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팔이피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금 거래만 유도하는 곳을 피하고, 거래 시 증거를 남기는 등 신뢰성을 꼼꼼히 따지는 태도도 필요하다. 인플루언서 역시 소비자들의 신뢰에 부합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강예진 수습기자 (jinvd@skuniv.ac.kr)

대학가를 위협하는 사이버, 종교의 탈로 감춰진 그 실체



사회에 잔존하는 어두운 그림자, '사이비'

'사이비(似而非,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라 일컫어지는 종교에 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사이비종교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종교는 지극히 개인의 신념에 따르며, 어떤 것이 종교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 구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이비는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며 은밀하게 번성하고 있다. 대부분 비합리적인 교리로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세뇌해 반강제적으로 집단에 편입하게끔 만든다. 세뇌된 신도들은 대개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파하는 방식으로 또 다른 신도를 만들며 점점 더 조직화한다. 사이비는 신도들에게 온갖 명분을 갖다 대며 전 재산을 헌납하고 가정을 등한시하게끔 명령하기도 한다. 이미 외부와의 접근이 차단된 신도들은 사이비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하지만 사이비는 단순히 신앙을 강요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종교를 가장해 살인이나 성범죄, 폭력,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다. 종교 단체로 인정하기에는 명백히 법에 저촉되는 행태다. 이러한 사이비의 횡포가 사회에 막대한 파장을 불러 일으킨 비극적인 사건들을 소개하려 한다.

아가동산은 1982년 김기순이 설립한 신흥 종교다. 김기순은 본인을 신격화한 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며 신도들을 세뇌해 왔다. 400명에 육박하는 신도들은 선택받은 자만이 들어갈 수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 노동 착취... 40여 년 간 은폐된 JMS의 추악한 실체

JMS(기독교복음선교회)에 대해 알고 있는가? 동아리로 위장해 대학가에서 포교를 일삼는 이들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JMS 편에서는 이들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다. JMS는 군부 독재 시절인 1980년대부터 신촌 대학가 중심 명문대생들을 전도하며 교세를 뿔어 나갔다. JMS 전 부총재 김경천 목사는 "성경을 2,000번 읽으며 이해되기 쉽도록 해석해 줘 이곳에 입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전도된 인원은 3만 명에 달했고, 90년대 초부터 여신도 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성경 공부를 하자는 대학생 언니를 따라가 JMS에 가입하게 된 김 모 양은 1993년 고2 시절 JMS 총재 정명석과 1:1 상담을 했다. 그는 면담과 건강 진단을 핑계로 함께 있던 언니를 내보낸 후, 김 양에게 옷을 벗으라 강요하며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 김 양은 "성경이 수업을 위해 강요하며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 양은 "성경이 수업을 위해 강요하며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김 양은 "성경이 수업을 위해 강요하며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정 씨의 생각이 신도들의 생각인 '명령종 수련원'에서 조경 작업을 진행할 당시 보호장비 및 안전보험 적용 없이 7~80톤 바위를 다루는 강제 노동을 일삼기도 했다. 최소 100명 이상의 신도



출처: 국민일보

사이비는 단순 종교적 오류로 치부하기 어렵다. 이들은 신도들로부터 현금, 재산 등을 착취하여 금전적 피해를 안기고 강제적인 세뇌를 통해 가정 파괴를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일부 사이비 단체는 성범죄까지 저지르며 그 피해 규모와 범위가 커지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사이비를 '범죄 단체'로 보고, 그에 걸맞은 강력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있다는 '협업마을'에 들어가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교주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 폭행을 당하거나 죽음까지 각오해야 했다고 한다. 피해자 증언 김기순의 아들이 그녀를 좋아했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구타로 사망에 이른 여성도 있었다. 또한 신도들의 집단폭행으로 사망했던 7살 어린아이는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으로 위조됐다. 충격적인 사실은 폭행 가담자에 피해자의 친모도 있었다는 것이다. 아가동산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피해해졌다.

여러 프로그램에서 다루며 많은 의문과 경악을 낳았던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을 기억하는가? 오대양은 사이비 교주 박순자가 건립한 사계품 제조 회사였다. 박순자는 맹목적인 신도들을 통해 170억 원에 달하는 사채를 썼다. 이후 채무자가 상환을 요구하다 집단 구타를 당한 것을 계기로 오대양을 향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박순자와 31명의 신도들은 경찰을 피해 나흘간 숨어 있었던 공장 천장 위에서 전부 사체로 발견됐다. 검찰은 집단 자살로 결론 냈으나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며 사건의 진상은 현재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이비는 '종교'라는 명목 뒤에 숨어 그들이 저지른 악행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 앞서 언급한 아가동산의 교주 김기순은 살인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착취를 통해 얻은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이비 교주들과는 달리, 탈퇴한 사람들에게 회복이 힘든 정도의 피해한 삶만이 남았다. 사이비에 속해 있을 때 몰랐으나 나중에 잘못된 신념에 빠졌었다는 사실을 알고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한다. 이처럼 사이비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이들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한, 엄중한 처벌과 대응책이 강구돼야 할 시점이다.

마약과 성범죄, 중류를 막론한 사기들... 현 사회에는 다양한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다. 그 중에서도 종교 단체를 자칭하면서 실은 '사회악'을 추종하는 이들도 있다. 바로 '사이비 종교단체'다. 사이비 단체들은 성인인기는 하나 아직 사회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고 자아가 불안정한 사회 초년생, 즉 20~30대를 집중적으로 포교한다. 가장 유인하기 쉽고, 그들을 끌어들이므로써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포섭한 신도를 체계적인 시스템 하에서 관리한다. 포교 초기에는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돼 주며, 어디서든 경험하지 못했던 친절과 도움을 베풀며 현혹한다. 그 다음에는 성경과 같이 실제 종교에서 사용하는 종교서를 사이비 종교 단체의 입맛에 맞게 가공하거나 왜곡한 형태로 교리를 주입한다. 계속되는 세뇌 작업에 포교 당한 이들은 탈출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잊게 된다. 세뇌 이후에는 점점 가족과 멀어진 삶, 그리고 해당 단체에 물질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자신의 삶을 모두 헌신하기를 강요한다. 극단적으로는 신자들에게 기술을 중용하기도 하며, 성범죄나 사기 범죄에 이용하기도 한다.

이번 기획 기사에서는 대학가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린 사이비 종교와 그들 단체에 대해 파헤쳐 본다. 여러 매체에서 다루어져 몇 차례 도마 위에 올랐던 규모 있는 사건부터, 일상에서 포교 피해를 본 대학생의 진술한 인터뷰도 담았다. 지금부터 취재부와 함께 그 내밀한 이야기를 들여다보자.

정 씨가 출소하기까지 10년간 JMS는 내부 결속을 강화해, 탈퇴자와 피해자를 향한 무차별적인 보복을 저질렀다. 김도형 교수의 부친은 신도들로부터 테러를 당해 왼쪽 얼굴 뼈가 함몰되는 부상을 입었다. 김 교수는 "현직 검사도 신도니까 사람 뒷조사 정도는 일도 아니었다"며, 테러범들이 가족들의 신상 정보를 꿰고 있었으며 자택에 도청 장치도 설치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혔다. [출처: 서울신문]

출소 후에도 정 씨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다. 홍콩 국적 신도 메이씨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안 나오기를 바라다며, 추행 당한 당시 녹취록을 공개했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 까지 총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9일 대법원은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울러 15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JMS의 범죄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 이상 은폐되지 않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갖고 단호한 법적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

3명 중 2명이 사이버 포교 경험 有... 대학생들의 삶까지 침투한 사이버 포교

최근 우리나라에서 사이버 포교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20년 COVID-19 발병 초기에 신천지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이버 포교의 실체가 드러난 바 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어수룩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대학가에서 포교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학생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이버 포교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서경대 학생들을 포함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글폼을 통해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총 68명의 대학생이 조사에 응했다.

가장 먼저 사이버 포교를 당한 경험이 있느냐는 물음에 68명 중 52명(76.5%)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36명(67.9%)은 학교 캠퍼스를 포함한 대학가 근처에서 사이버 포교 포교를 당했다고 답했다. 포교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포교를 당했는지 물었다. 49명(70%)은 '길거리 설문 조사'와 '대화 요청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고 답했다. 그 외에도 '동아리를 통한 포교' 7명(19.4%), '지인의 권유' 3명(8.3%), '웹툰 소재를 위한 인터뷰' 1명(2.8%)과 '설문 조사 후 상품 수령 과정' 1명(2.8%)이 있었다.

사이비 종교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정도에는 '매우 심각하다'고 답한 이들이 33명(48.5%), '심각하다'가 28명(41.2%), 그 외 '보통'과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학생이 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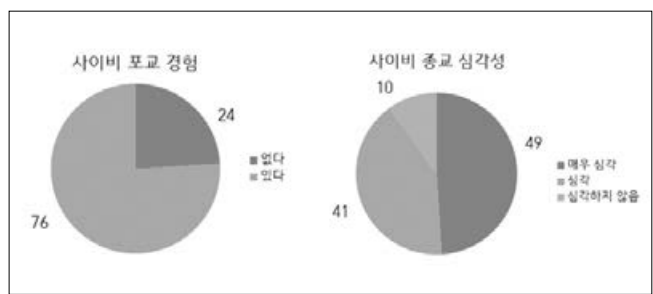
(10.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이비 종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은 68명 중 64명(94.2%)으로, 대다수가 사이버 종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사이비 종교와 일반 종교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는 68명 중 '보통이다'가 20명(29.4%)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른다'가 19명(27.9%)으로 뒤를 이었다. 많은 학생들이 사이버 종교와 일반 종교를 구분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인 포교 행세를 펼치는 사이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과반수 이상(61명, 89.7%)이 사이버 포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교인 A 학생은 "길거리에서 포교를 당할 때 상대방이 '하나님' 또는 '주님'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부터 사이비나 광신도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이로 인해 특정 종교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아졌다"고 답했다. 이어 "학생들에게 안전해야 하는 캠퍼스가 사이버 포교 문제로 인해 학내 구성원들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개인 신상 정보를 캐묻고 말을 걸며 따라오는 상황에 압박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설문 결과, 과반수 이상의 대학생들이 사이버로부터 포교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며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단속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사이버 종교와 일반 종교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학생들이 적어, 사이버 포교 대비책을 모색해 포교에 말려들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알잡아 보면 큰코다치는 '사이비 종교 신종 포교 방식'

보에 대해서만 질문했어요. 마지막 대면 상담 때는 서로 시간이 맞지 않자, 급기야 '사실 위에 언니가 한 명 더 있는데 그분과 시간이 맞춰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사이비 단체의 포교였다던 것에 확신이 생긴 것은 며칠 뒤 저에게 김과와 앱 측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이에요. 타 회원에게도 저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상담하다가 신고가 들어왔더군요. 저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나 검색을 해보니 과의 중개 앱이 '사이비종교 포교 톨로'로 이용됐다는 뉴스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Q. 이러한 일들을 겪으며 느낀 점은. A. 저는 그동안 사이비 종교와 그 신자들에게 선입견이 다 분했습니다. '단순, 바보'라는 키워드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가 보아도 수상쩍을 만큼 길에서 말을 거는 게 전부지 않나, 하고요. 하지만 여러 사건을 겪으며 이러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이비 단체들은 생각보다 교활하고, 이미 곳곳에 정말 많이 퍼져있습니다. 길거리뿐 아니라 인터넷과 여러 앱상으로도, 다들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이들은 김 모 양처럼 사이비 신도들은 단순하고 무식한 이들이나 자신이 포교를 당한다 해도 알아채리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들 단체의 포교 방식은 낱이 갈수록 교묘하고 치밀해지는 중입니다. 종교에 무지했던 이들도, 이미 교회 등의 종교단체에 속해있는 신자들도 방심한 새에 포교 당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들의 포교 특징은 위장하여 접근하며, 관계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심리검사나 경품 당첨 등을 빌미로 연락처를 얻으며, 만남 초기에는 종교적인 색채를 띄우지 않는다. 따라서 낯선 이가 배후는 대가 없는 친절을 경계하고, 연락처나 주거지를 포함해 진로나 고민을 집중하게 물어보는 경우 알려주지 않는 것이 좋다.

출처: 신동아

Q. 어떤 일이었는지 설명해 주신다면. A. 작년엔 겪었던 일입니다. 학부모나 보호자가 학생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 두면 저와 같은 대학생 과외 선생님이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는 앱인 '김과'를 통해서였는데요.

제가 수업을 맡겠다고 신청하자, '학생의 언니'라 칭하는 사람이 전화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언니라는 분은 "부모님이 바쁘셔서 자신이 과외 신청 글을 올리고 상담을 요청했다", "동생이 공부 잘해달라고 하는데 아직 기초가 안 되어있다" 등의 말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였는데요, 저에게 '왜 사범대에 갔느냐, 왜 이런 과외 일을 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MBTI 같은 것도 물어봤고요. 무엇보다 제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 했어요. 답변을 해드리면서도 조금 의아해질 무렵, 제가 오해하지 않길 바랐는지 "동생이 왕따당한 적이 있어 가르침에 대한 수준보다는 아이와 잘 통하는 교사인, 인성이 어떤지가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얼굴을 보고 상담을 한 번 더 진행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며 통화는 종료됐습니다.

이후 대면 상담은 시간이 잘 맞지 않아 지체되다가 껍질처럼 느끼기 시작한 제가 상담을 거절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Q. 어떤 순간에 일반적인 과외 상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나. A. 처음 의심이 갔던 부분은 학생의 수업과 관련한 내용은 일절 물어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계속 저의 진로나 기타 정

교와 사이비 종교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호소하며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 규제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이비는 포교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접근하기에, 길을 물으러 다가오는 이가 훗날 사이비가 아닐지 의구심부터 드는 실상이다. 사이비에 빠졌던 사람들을 우대하지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통해 사이비 단체들의 심각성과 교활성을 더욱 깊이 인지

해야 한다. 주변에 사이비에 빠진 이나 그로 인해 고통받는 친지가 있다면, '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 등 전문 상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본 기사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사이비의 실체를 깨닫고, 그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경각심을 지니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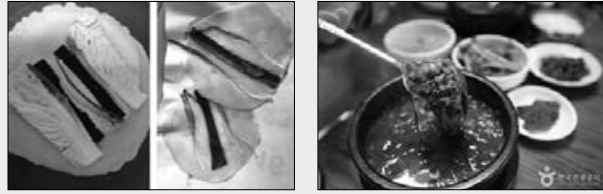
신스토랑, 가을의 맛을 찾아서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청명한 하늘과 풍성한 결실이 함께 하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의 풍요로움을 만끽하고자 신문사 기자들 역시 '음식'을 주제로 기사를 다뤄보기로 했다.

먼저 지역별 특색이 담긴 음식들을 소개하며 이와 얽힌 경험을 나눈 다음, 집에서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를 공유한다. 일상생활 속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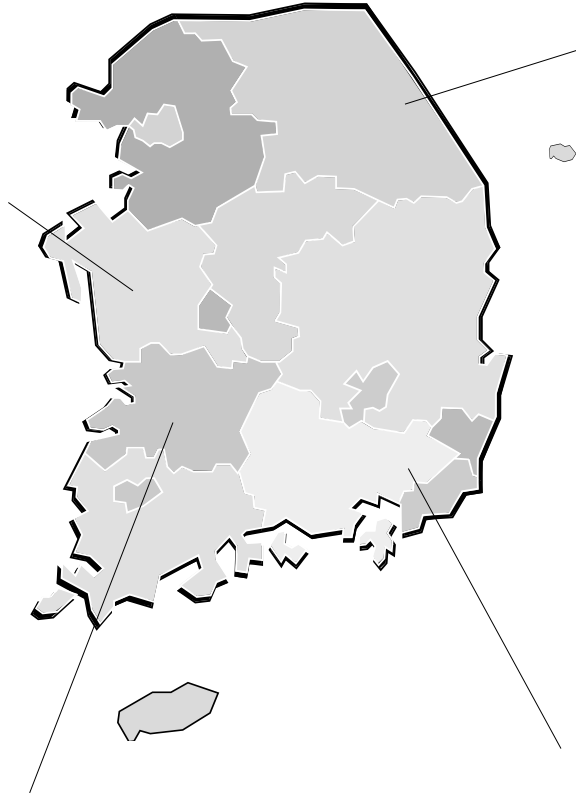
을 소개하니, 독자들도 레시피를 따라 가을의 맛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 이어지는 술집담백 코멘트까지 함께 살펴보고 도전해 보자.

충청의 음식, '갈랍'과 '올갱이국'



▲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캡처 ▲ 출처 : 한국관광공사

어린 시절, 여름이면 냇가에서 다슬기를 잡곤 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잡은 다슬기를 다시 냇가에 놓아줬다. 그러다 이따금 다슬기를 삶아 먹었는데 맛도 잘 모르면서 다슬기 속살을 발라내는 재미로 먹었더랬다. 외가 큰집에 갈 때면 으레 올갱이국을 먹었다. 눈치 빠른 독자라면 금세 알아차렸겠지만, 올갱이는 '다슬기'의 충청도 방언이다. 충북 향토 음식인 '올갱이국'은 먹어본 사람이 아니면 이름부터 의아해하는 음식으로, 초록빛이 도는 낫선 비주얼과 특유의 향에 호불호가 갈린다. 충북 괴산군에는 '올갱이국 거리'가 있을 정도로 올갱이국이 유명하다. 주재료는 다슬기, 부추, 배추, 고추, 된장이다. 부재료로 들어가는 아욱은 가을에 맛이 최고조에 이르러 올갱이국 역시 가을에 먹어야 가장 맛이 좋다고 한다. 단출하지만 올갱이를 넣고 끓여낸 국물의 맛이 깊어 한 번 먹어본 이들은 그 맛을 잊기 어렵다. 명절마다 외가에서는 색색의 전 사이, 허여덜건한 전이 있었다. 이름도 모르는 전을 그냥 먹기도 하고, 찌꺼기에 넣어 먹기도 했다. 바로 '갈랍'이다. 한때 '충청도에서만 먹는 전'으로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가 됐던 갈랍은 충청도식 전을 이르는 말로, 밀가루 반죽에 멸치, 배추, 씻은 김치, 고사리, 쪽파, 다시마 등을 올려 만든 음식이다. 충청도 사람들은 조상들이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보자기처럼 싸갈 수 있도록 갈랍을 얇고 크게 부쳐 냈다고 한다. 갈랍은 보통 한두 가지 재료를 올려 단출하게 만들어지지만 조상들을 위한 충청도인들의 정겨운 마음이 담겼다. 인풋 보면 맛이 없을 듯하나 삼삼하고 고소한 맛에 자꾸 생각나는 맛이다.



강릉의 명물, '초당 순두부'와 '춘천 닭갈비'



▲ 출처 : 네이버 블로그 캡처

필자는 고등학교 시절 강릉 여행을 간 적이 있다. 당시 처음 먹어본 음식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맛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바로 초당 순두부 아이스크림이다. 강릉이 순두부로 유명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를 활용한 디저트도 있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초당 순두부는 강릉의 대표적 특산물로, 동해의 바닷물을 간수로 활용해 담백한 맛을 전한다. 참고로 '초당'은 허난설헌의 아버지 허엽의 호를 붙인 것이다. 허엽이 강릉 부사로 근무할 당시, 집 앞 샘물로 콩을 기르고 바닷물로 간을 맞춘 두부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좋아 자신의 호를 붙였다고 전해진다. [참고 :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강릉에는 초당 순두부 골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순두부를 활용한 아이스크림, 찰떡 등 다양한 디저트가 있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끈다. 이어 춘천의 명물, 닭갈비를 소개한다. 춘천닭갈비는 과거 이곳의 식당들이 군인,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닭고기 요리를 제공하던 것이 인기를 끌며 유명해졌다. 춘천시는 '춘천닭국수닭갈비축제'를 매년 개최하며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상도의 보물 '얼큰 소고기뭇국'과 '콩잎지'



▲ 출처 : 미상유, 산마을농장

필자는 어릴 적부터 빨간 소고기뭇국을 먹어왔다. 그런데 급식에는 항상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하얀 소고기뭇국만 나왔다. '학생들이 먹는 거라 매워할까 봐 빨강계 안만드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맑은 소고기뭇국이 아닌, '얼큰 소고기뭇국'이라 불리는 빨간 소고기뭇국은 경상도 사람들만 먹는 것이었다. 둘의 차이는 고춧가루의 유무다. 경상도인이 아니면 빨간 소고기뭇국을 육개장이라 착각하기도 한다. 육개장엔 고사리나 숙주, 토란대 등의 나물이 더 들어가 건더기가 많지만 경상도식 소고기뭇국은 일반 소고기뭇국처럼 소고기와 무, 대파 등으로만 간단히 끓인다는 차이가 있다.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무더운 대구 지역의 날씨와 맵고 간이 센 음식을 좋아하는 경상도 사람들의 식습관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경상도와 제주도에서만 먹는다는 음식으로는 콩잎지가 있다. 콩잎도 먹는다는 걸 모르는 이들이 많지만, 19세기 초 저술된 농서인 '농정회요(農政會要)'에 "콩잎을 다 따먹으면 콩알에 기름기가 적어 지고 수확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기록으로 보아 역사가 오래된 음식임을 알 수 있다. 콩잎지는 얼핏 보면 나뭇잎을 먹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필자는 깻잎지보다 콩잎지를 더 선호하는데, 정말 나뭇잎같이 단단한 식감에 찢어지처럼 양념을 한가득 머금고 있지 않아 많이 찢지 않고 깔끔하다. 된장콩잎지, 간장콩잎지, 빨간양념 콩잎지 등 종류도 다양하다.

전라도의 맛, '콩나물국밥'과 '오모거리탕'



▲ 출처 :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

필자는 고등학교 시절, 탐구 과목 중 한국 지리를 좋아했다. 그중 지역 특산물을 배울 때면 특산물이 거의 먹거리인, 맛의 고장 전라도는 어떤 곳인지 궁금했다. 한식 요리의 진수 전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군산 외에도 특산물 자체로 유명한 전주 콩나물국밥, 전주 오모거리탕, 보성 녹차, 임실 치즈 등등 전북 특산물도 문화관광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14개 시군별 추천 음식 페이지가 있다. 2012년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된 전주는 그 명성에 걸맞게 바로 생각나는 음식이 여러 가지 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전주비빔밥이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다. 필자가 소개할 음식은 '콩나물국밥'과 '오모거리탕'이다. 전주 콩나물국밥의 유명세에는 임실의 서목태로 키운 전주 콩나물이 한몫한다. 서목태는 쥐의 눈 같다 하여 쥐눈이콩, 약성이 높다 하여 약콩으로도 불린다. 전주 지방의 기후, 수질 등이 콩나물 재배에 적합해 품질 좋고, 맛이 일품인 콩나물이 생산된다. 디스토마로 인한 토혈이나 각기병 예방에 좋아 사람들이 많이 먹어 자연스레 콩나물을 이용한 음식 문화가 자리매김했다. '오모거리'는 폭배기의 전라도 사투리로, 오모거리엔 민물고기와 시래기, 들깨, 산초가루 등 양념을 넣어 끓인 것이 오모거리탕이다. 내장을 제거한 크고 작은 피라미, 붕어, 동자개, 소가리 등의 다양한 민물고기가 들어간다. 이때 육수는 간수를 뺀 소금물만을 사용하는데, 민물고기 본래의 맛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민물새우와 들깨가루, 다진 마늘, 파 등을 넣고 2~30분간 끓이면 오모거리탕이 완성된다. [출처 :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송민경의 레시피

“간편하게 똑딱”... 참치김치찌개



“뭘 먹지?” 매일, 매끼 드는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줄 참치김치찌개 레시피를 소개한다. 그리 어렵지도 않고 계량도 필요 없어 눈대중으로 순식간에 완성할 수 있다. 필수 재료는 냄비 두 개, 육수용 멸치 혹은 다시마, 신김치와 김치국물, 참치캔, 식용유, 우동 다시(육수 조미료), 설탕이다. 다진 마늘, 파, 후추는 선택 사항이라 없어도 되지만 더하면 감칠맛이 살아난다. 조리 방법은 냄비의 3분의 2 정도까지 물을 붓고 깊은 풍미를 더해 줄 육수용 멸치 혹은 다시마를 넣어 육수를 우려낸다. 없다면 대표 조미료인 '다시다'를 넣고 끓인다. 다른 냄비에는 식용유를 두르고 잘게 썬 김치와 김치국물, 설탕(기호에 따라 조절)을 넣어 중불에 볶아준다. 김치 색깔이 주황색으로 변하면 참치캔을 넣어 살짝 볶는다. 이때 참치캔 기름도 함께 넣어준다. 앞서 끓여 둔 육수를 부은 다음, 우동 다시를 한 손가락 넣고 팔팔 끓여 준다. 다진 마늘, 파, 후추는 간을 보면서 양을 조절한다. 끓이면 끓일수록 맛있는 참치김치찌개가 완성된다.

♡김나연의 후기 : 필자는 보통 김치찌개에 돼지고기를 넣거나 참치를 넣어도 볶지 않고 그냥 마지막에 넣었다. 조리법대로 참치를 볶아서 넣으니, 참치의 맛이 더 진하게 났다. 김치찌개와 우동 다시는 새로운 조합이었는데 의외로 맛있어서 다음에 먹을 때도 넣을 것 같다.

강예진의 레시피

새로움을 더하다... 얼박사에 '망고' 추가



잠이 부족하거나 유독 피곤한 날, 필자가 하루를 버티기 위해 마시는 음료는 팬의점에서 파는 작은 크기의 얼음컵에 피로회복제인 박카스와 사이다를 섞어 마시는 이 음료는 '얼박사'로 불린다. 매우 간단한 제조법과 편의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오전 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은 얼박사의 매력으로 꼽힌다. 피로회복제의 달콤함과 탄산의 조합은 보양된 맛이지만 새로움을 선사한다. 필자는 이 음료를 조금 변형해 보기로 했다. 최근 유행한 '하방추' (아이스티에 망고 추가)처럼 망고를 넣는 방식이다. 시도한 결과, 얼음과 함께 씹히는 망고의 부드러운 식감이 좋았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얼음컵의 얼음을 제거하지 않아서 망고를 많이 넣지 못했다는 것이다. 만약 이 레시피를 도전한다면, 망고의 공간 확보를 위해 얼음을 미리 더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송민경의 후기 : 얼박사를 먹어 본 적이 없어 망고를 추가하기 전에 먼저 한입 마셔봤다. 온몸에 상쾌한 느낌이 감돌았다. 망고를 넣어 보니 은은하게 퍼지는 망고의 단맛이 음료와 어울리지 않아 묘하게 곱도는 느낌이었다.

김나연의 레시피

어렵지 않아요, '달걀 쌀 피자'



필자는 아침을 챙겨 먹는 편이 아니라, 가끔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아침으로 이 음식을 자주 해주셨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일명 '달걀 쌀 피자'다. 팬에 달걀물, 라이스페이퍼, 달걀물 순으로 차곡차곡 올려준다. 달걀물을 먼저 부으면 나중에 접었을 때 쉽게 터지지 않는다. 라이스페이퍼 위로 달걀물을 한 번 더 얹게 넣는다. 달걀물이 어느 정도 익으면 토마토소스를 바르고 치즈, 야채나 베이컨 등을 기호에 맞게 올린다. 반으로 접어서 노릇노릇하게 구운 뒤 잘라 먹으면 완성이다. 달걀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제일 아래에 달걀물을 붓는 대신 라이스페이퍼를 두 장 겹쳐서 요리하면 좋다.

♡김나연의 후기 : 필자는 토마토소스를 싫어해서 케첩과 마요네즈를 반반 섞어 만들어봤다. 치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맛있는 것 같다. 요즘 피자가 비싼데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맛이다.

김나연의 레시피

똑같은 인스턴트가 지겹다면? '마늘 달걀 라면'



새로운 음식 조합을 시도하기 좋아하는 필자의 오빠는 라면에 쟁쟁을 넣고 끓인 뒤 달걀 프라이를 얹어 먹는다. 라면에 달걀을 풀어 넣지 않고 프라이로 올리는 이유를 물어보니 백종원 유튜브 레시피 '순딩이라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한다. 라면에 기름진 무언가가 올라가면 더욱 고소해지면서 감칠맛이 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필자는 차마 라면에 쟁쟁을 넣어 먹기 싫어서, 대신 마늘 플레이크를 얹어 먹어 보기로 했다. 마늘을 얇게 썰어 구운 뒤 달걀 프라이와 함께 얹은 '마늘 달걀 라면' 완성이다. 먹어보니 마늘과 달걀을 굽는 과정에서 기름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느끼하게 느껴졌다. 후추를 곁들이거나 매운 라면에 시도하면 좋을 것 같다. 프라이는 단단한 식감이어서 면발의 부드러움과 함께 씹는 맛이 있었다.

♡강예진의 후기 : 마늘과 달걀 프라이를 조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충분히 도전할 만한 난이도였다. 프라이와 라면의 식감이 생각했던 것보다 잘 어울려 놀랐고, 마늘 향도 느껴졌다.

주간칼럼



“나무가 숲이 되어” 공동체와 연대의 힘

얼마 전 사회복지법인 혜명의 설립 66주년 기념식은 단순히 설립 기념일을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었다. 혜명이 걸어온 66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동안 이루어진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모여 큰 영향을 만들어 왔는지 되새기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그 비전을 앞으로 이어갈 젊은 세대와의 소통의 장이기도 했다. 특히 청년문화콘텐츠기획단(청문단)의 참여와 아이디어가 돋보였던 이 행사에서는 “나무가 숲이 되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제안되었고, 단순한 구호 이상의 의미를 지닌 메시지가 되었다.

우리는 흔히 숲을 떠올릴 때, 많은 나무가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루는 모습을 상상한다. 그 나무들은 개별적인 존재로서도 존재감을 가지지만, 여러 나무가 함께 모였을 때 비로소 그 본래의 가치를 발휘하며, 숲이라는 생태계를 형성한다. 사회

복지법인 혜명의 66년이 걸어온 길도 그와 유사하다. 혜명은 1958년 자비 사상과 중생구제를 실현하고자 설립되어, 그동안 16개의 사회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데 헌신해왔다. 이러한 역사를 돌아보면, 그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나무가 아닌, 수많은 나무가 함께 자라나 숲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66주년 기념식의 캐치프레이즈 “나무가 숲이 되어”는 청문단이 지향하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각자의 경험과 아이디어가 모여 풍성한 콘텐츠와 활동을 만들어 내듯, 개별 단원의 노력이 하나로 모였을 때 그 힘이 배가된다. 이처럼 청문단은 ‘나무’ 하나하나가 숲을 이루듯,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공동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할 수 있다는 믿음 아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청문단이 제시한 캐치프레이즈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다. 개인의 성장이 중요한 만큼,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성장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단단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서로의 배려와 협력이 필요하다. 숲은 단지 나무들의 모임이 아니다. 그 나무들은 서로 뿌리를 뻗고, 그늘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지지하는 상호작용 속에서 숲이라는 생태계를 만들어 간다. 공동체 정신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대학이라는 공간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하지만 그 목표가 아무리 개인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영향

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한다. 개별적인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그 결과 새로운 지식과 가치가 창출된다. 마치 숲을 이루는 나무들이 각기 다른 특성이 있지만, 함께 모여 하나의 큰 생태계를 형성하듯, 대학은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더 큰 가치와 의미를 창출하는 곳이다.

이번 혜명 66주년 기념식은 이준재 단원이 단독사회를 맡아 주최측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단원 개인뿐만 아니라 청문단도 중요한 경험이었다. 단원들은 각자가 지닌 개별적 특성과 역량을 결합하여 공동체를 위한 가치 있는 행사를 만들어낸 경험을 통해, 공동체의 힘과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는 종종 개인의 성장에만 집중하느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기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땅, 물, 공기, 그리고 다른 나무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도 개인의 노력만큼이나, 서로를 향한 배려와 협력이 중요한 순간이다. 혜명의 66년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돕고, 이해하며, 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을 보여 주는 귀중한 역사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숲처럼 자라날 것이다.

“나무가 숲이 되어”라는 메시지는 혜명의 66년을 축하하는 기념일을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더 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교훈을 던져주었다. 개인의 성장을 넘어,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정신이말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진정한 숲이다.

주간 방미영 교수

| 기자의 눈 |

슬랩스틱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슬랩스틱’은 1미터가량의 음악용 타악기 내지는 연극용 소도구를 지칭한다. 이를 이용하면, 아프지는 않되 소리는 크게 나 세계가 격한 듯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오늘날 슬랩스틱은 풍자가 과장된 코미디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도구에서 아예 코미디 장르를 지칭하는 대명사가 됐다.

슬랩스틱은 무성영화 초기시대 할리우드에서 크게 성행했다. 오늘날 우리가 무성영화 하면 떠올리는 스타와 장면들은 대부분 슬랩스틱 영화에서 파생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은 슬랩스틱 영화는 어떻게 시작됐고 발전했는지 그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 역사를 되짚어보자.

슬랩스틱 영화 역사를 짚기 이전에, 미국 영화의 시초를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 데이비드 W. 그리피스라는 고전 할리우드 영화의 시조로서 더 나아가 현대 영화의 아버지

로 불리는 인물이다. 그는 신(scene)과 숏(short)의 개념을 구분하고 정당한 최초의 인물이며, 그를 통해 다양한 촬영 기법이 탄생하고 도입됐다. 특히 그의 영화 ‘국가의 탄생(1915)’은 많은 영화인의 말마따나 고전 영화와 현대 영화를 나누는 기점으로 통하니, 그리피스가 영화 역사에 시사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지 감도 오지 않는다.

한편 그리피스가 감독이 되자 그의 밑에서 배우로서 경력을 쌓던 배우는 1912년 ‘키스틴 스튜디오’를 설립하며 독립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슬랩스틱의 원조라고 불리는 맥 세넷이다.

현대 영화의 시조와 슬랩스틱 영화의 시조가 같은 뿌리에서 자라났다는 것은 의미가 깊다. 그리피스로부터 영화 기술을 배우던 맥 세넷은 당시에는 전무했던 코미디 전문 스튜디오, ‘키스틴 스튜디오’를 설립한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는 슬랩스

틱 영화의 성지이자 많은 인재의 등용문이 된다.

그는 자기 스튜디오에서 슬랩스틱 형태의 코미디 영화들을 찍어냈고, 살아생전 700편이 넘는 영화들을 만들었다. 그의 영화들은 슬랩스틱 영화 장르와 원형을 구축했다. 이때 사용된 그의 기법들은 이후 그의 후배들이 즐겨 사용되는 레퍼토리가 되면서 슬랩스틱 영화, 더 나아가 슬랩스틱 코미디 자체를 상징하는 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키스틴 스튜디오의 전성기 당시 대표 배우는 로스코 아버클이었다. 아버클은 130kg이 넘는 거구였지만 유종한 몸매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 슬랩스틱을 잘 살려 내기로 유명했다. 그는 다리 찢기로 유명한 그의 사촌, 알 세인트 존과 함께 활동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 둘의 콤피는 오늘날 개그에서 자주 사용되는 ‘똥퐁이와 훌퐁이’의 원형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로스코 아버

클의 진가는 그의 후배 양성에 있다. 그는 자기 영화에 후배들을 적극 출연시키며 여러 스타 배우를 배출했고, 이는 슬랩스틱 영화의 전성기로 이어진다.

그리피스, 세넷, 아버클까지. 영화사의 내로라하는 영화인들의 유산이 차곡차곡 쌓여 슬랩스틱이라는 장르의 전형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영화인들을 배출했다. 그리고 이들의 행보는 결국 슬랩스틱 영화의 꽃을 피우게 된다. 키스틴 스튜디오에서 찰리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이 영화계에 데뷔하게 됐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는 무성영화 슬랩스틱을 논할 때 ‘떠돌이 찰리 채플린, ‘무표정’ 버스터 키튼, 그리고 ‘안경잡이’ 해럴드 로이드를 빼놓지 않는다. 무성영화 슬랩스틱의 3인방이라 불리는 이들은 경이로운 완성도의 슬랩스틱 영화를 만들어내며 슬랩스틱을 넘어 무성영화 시대의 아이콘이 된다. 이들은 외적으로 보

이는 차별성만큼이나 독특하고 확고한 영화들을 만들어내며 자신들의 영화적 재능을 만개했다. 캐릭터도, 개그 스타일도, 맞이한 운명도 모두 달랐던 이들이지만 몸을 사리지 않는 헌신과 더 좋은 영화를 위한 열연만은 같았던 셋이다. 이들의 불꽃으로 타오른 슬랩스틱 영화는 영화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다.

슬랩스틱 3인방 이후 유성 영화의 도래와 함께 슬랩스틱은 역사의 뒤안길로 빠르게 사라졌다. 많은 슬랩스틱 배우가 유성 영화에 적응하지 못해 잊혀 갔다. 하지만 슬랩스틱은 영화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으며 이들의 남긴 노력의 흔적은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영화인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영감의 원천이 돼 주고 있다.

전준혁 기자

(nicejackkyhu@naver.com)

| 수습의 눈 |

문해력 부족 vs 세대 차이...입사지원서 논란이 일깨운 시사점

지난 8월, 아르바이트 입사지원서 사친 한 장이 SNS를 달궜다. 사친 속 입사지원서를 살펴보면, ‘휴대폰’란에 아이폰이라는 단말기 기종이 적혀 있다. 즉 번호를 써야 하는 곳에 번호가 아닌 기종을 쓴 것이다. SNS에 공개된 후 널리 퍼진 입사지원서는 2007년생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누리꾼들은 번호를 작성해야 하는 곳에 기종을 쓴 것을 두고 문해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 역시 이 논란을 접했을 때, 문해력 부족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히 문해력의 문제가 아닌, 세대 차이라는

의견도 존재했다. 양쪽의 견해를 들어보니 어느새 세대라는 관점에서 논란을 다시 보게 됐다. 과연 이 논란이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두 관점을 통해 살펴보자.

먼저 문해력 저하는 최근 몇 년간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사흘’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 ‘연고’라는 단어를 상처에 바르는 약으로만 이해하고, 인연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다. 문해력 저하는 숫자와 같이 짧고 단순한 콘텐츠의 대중화로 더욱 심각해지는 추세이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문해력 저하는 개인의 일상에서 의사소통의 오류를 일으켜 곤란한 상황을 만들곤 한다. 위 사례 지원자 역시 전화번호를 써야 하는 데, 양식은 그대로인 것도 문제가 있다며 시대에 맞춰 이력서 양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세대 차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입사지원서를 자세히 보면, ‘휴대폰’의 옆 칸에는 전화번호를 작성하는 칸이 따로 마련돼 있다. 즉 2007년생인 지원자가 집 전화라는 개념을 모른다면, 전화번호를 똑같이 적어서 내는 것보다 기종을 적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했다는 추측이다. 이와 더불어 지원서 양식 변화를 촉구하는 이들도 나타났다. 휴대전화의 보편화로 집 전화가 필요 없어짐에 따라 집 전화를 모르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양식은 그대로인 것도 문제가 있다며 시대에 맞춰 이력서 양식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관점에서 논란을 바라보니 문득 시야가 좁았다는 판단이 들었다. 우리 집에는 집 전화가 있어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집 전화가 없다면 입사지원서를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 그렇기에 시대 변화를 고려한 이력서 양식 변화의 주장도 크게 와닿았다.

강예진 수습기자

(jinjvwd@skuniv.ac.kr)

| 수습의 눈 |

청춘은 당연하게도 미생이니까

“난 이미 많이 늦은 것 같아.” 1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카페에서 털어놓던 한마디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 대학에서도 상위권에 들었던 친구가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털어놓은 고민이었다.

그에 비해 나는 매우 생활. 그리고 1년의 휴학 생활을 하며 이미 또래 친구들과는 다른 학년과 다른 삶, 일명 ‘뒤쳐지는 삶’을 살고 있었다. 3학기의 대학 생활을 하며 전공에 대한 회의감과 느끼고, 날고 기는 동기들을 바라보며 ‘과연 이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일까?’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지인 중 가장 모

범적이고 이상적인 삶을 사는 친구도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을 보며 대학생들 모두 말 할 고민을 속에 안고 사는 것임을 깨닫게 됐다.

한국의 고등학생 중 약 70%는 대학에 진학한다. 아르바이트, 대외 활동, 학업, 친목 혹은 본가를 떠나 대학가에 살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에 발돋움하게 된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전공을 배우게 되면서 느끼는 설렘, 막막함 그리고 어딘가 기대고 싶은 마음이 든다.

10대와 달리 20대에 들어선 순간, 황무지에 내버려진 기분이 들었다. 대학에 들어온 순간 ‘자유대!’

라기 보다는 ‘취업하려면 어떤 걸 해야 하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취업을 좇다 보니 학생들은 어느새 행복과는 동떨어져 ‘대학 생활’을 즐기기도 먼 미래를 위한 입시의 연장선을 걷는 듯했다. 열심히 살아가고 불구하고 남들보다 비교적 ‘덜’ 열심히 사는 내가 한심해 보이니까지 한다. 전공 적합성, 어려운 난이도의 과제,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만나는 진상들, 학점 관리, 대외활동을 하게 되면 눈 뜰 새도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며 나를 잃기 마련이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본인의 개성

을 잃고 기계 부품으로 전락하는 20대 청춘들은 본인 스스로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는가? 우리는 전공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인생의 난제는 풀지 못하고 본인이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모르며 살아간다. 미래는 언제나 두렵고 과거는 그렇다. 현실은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조차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존재다. 방향하고, 또 방향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청춘이다.

내가 생각하는 청춘은 20대 초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언제나 열정적으로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이 있

김소희 수습기자

(paa328@skuniv.ac.kr)

만/파/식/적

여성 노숙인, 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

계절에 맞지 않는 남루한 차림의 노숙인을 떠올려 보면 여성의 모습이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 길거리나 지하철 역사에서 맞닥뜨리는 노숙인은 모두 남성이었다. 평소와 다름없던 날, 우연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종종 걸음으로 지나쳐 가던 여성 노숙인을 마주쳤다. 한데 자리를 잡고 자리 싸움을 하는 남성 노숙인들과 달리, 정처 없이 근방을 떠도는 듯했다. 여성 노숙인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궁금했다.

지난 2월 27일, KBS ITV 탐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은 ‘길에서 여자가 살았다’ 편을 방영하며 여성 노숙인의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 시사기획 창은 여성 노숙인과 24시간을 함께 지내보며 그들이 겪는 상황을 직접 보고 들었다. 여성 노숙인들이 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성폭력, 폭행, 폭언 등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 숨어 있기 때문이었다. 여성임을 숨기기 위해 머리를 삭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곳에 좀처럼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 다른 곳을 찾아다녀야 했다. 심지어 공동화장실에 숨어 지내면서 밤새 드나드는 남성들에 잠을 청할 수도 없었다.

시사기획 창이 여성 노숙인 20명을 대상으로 노숙 원인과 노숙 전후 경제 활동 상황, 범죄 피해와 시설 거부 이유 등을 물었더니 절반은 ‘노숙 중 범죄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노숙 전부터 성폭행이나 가정 폭력의 피해 경험으로 인해 남성 위주인 노숙인 시설에 가는 것을 꺼린다고 했다. 남성 노숙인의 절반 이상이 실직이나 사업 실패 등의 경제 문제로 거리로 나온 것과 달리, 여성 노숙인은 가정 폭력, 가족 체제 등 가정 위기로 인해 경제활동 경험 없이 거리로 ‘내몰린’ 것과 다름없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노숙인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022년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전국 노숙인의 규모는 8,956명으로, 지난 2016년 1만 1,340명에 비해 21% 감소했다. 그러나 남성은 71.9%(6,439명), 여성은 27.8%(2,493명)를 차지하며 전체 노숙인의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오히려 여성 거리 노숙인의 수는 2016년 대비 18% 증가했다.

노숙의 주된 원인은 실직이었으며, 노숙 후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소득 지원이라고 응답했다. 거리 노숙인이 노숙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사유는 실직(42%)으로, 사업실패와 이혼 및 가족해체도 각각 17.5%, 8.9%를 차지했다.

하지만 현재 노숙인 정책은 남성 중심적인 지원 체계다. 여성 노숙인의 일시 보호시설은 전국에서 유일한 ‘다담센터’ 뿐이다. 일정한 장소에 있는 남성들에 비해 여성들은 ‘숨어’ 다니기 때문에 실태조사부터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거리로 내몰린 여성 노숙인들은 있지만 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며 복지 사각지대로 점점 밀려나고 있었다.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다 정확한 수도 파악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거리에는 분명 여성 노숙인도 있다.

송민경 기자 (illdawn012@skuniv.ac.kr)

사설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양면성

누적 가입자 700만 명을 넘어선 대학생 커뮤니티가 있다. 바로 ‘에브리타임’이다. 에브리타임은 대학 생활에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학생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강의 평가로 수강생 간 생생한 후기를 나누고 간편하게 시간표를 짜거나 중고 교재를 거래할 수도 있다.

또한 각종 게시판에서는 단순 소통뿐만 아니라 행사, 동아리, 스터디 모집까지 행해진다. 서경대에서는 단과대 통폐합 소식에 에브리타임을 소통의 매개 삼아 학우들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렇듯 에브리타임은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대학생만의 공론의 장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모든 글이 상대를 존중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목적으로 작성되지는 않는다.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는 정보 글 사이사이에 타인을 조롱, 비방하는 글이 심심찮게 눈에 띈다.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거나 앞뒤 맥락을 따지지 않고 무작정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익명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2020년, 에브리타임에 달린 악성 댓글로 피해자가 생을 마감해 학우들의 분노를 일으킨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평소 우울증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에브리타임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가 입에 담지 못할 악성 댓글들을 받았다.

대학의 목적은 무엇이었나. 기본적인 윤리 의식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고등 학문을 공부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논하고 싶다. 지성인에 걸맞은 인성을 함양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한편 커뮤니티 실태제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익명이 아닌 자신의 실명을 드러낸 채 글을 작성하면 사이버 폭력의 정도가 덜해질 거라는 것이다. 이따금 커뮤니티를 둘러보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글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에 반해 익명성이 주는 표현의 자유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익명성을 잃은 커뮤니티가 전처럼 활성화가 될진 미지수다.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아 솔직한 의견 표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이버 폭력은 비단 에브리타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소통이 오가는 모든 커뮤니티에 드러나는 문제다. 다른 커뮤니티와 달리 학교 인증을 받고 가입해야 함에도 악성 댓글이 만연하기에 별다른 검증이 필요 없는 그 외 익명 커뮤니티는 사안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커뮤니티의 접근 장벽이 낮아지면서 혐오 표현은 일상화됐고, 사람들은 점차 폭력에 둔감해지고 있다.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건 시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으나 발언할 자유가 모욕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할 권리는 없다. 무심코 내뱉은 글이 되레 같이 돼, 손끝으로 타인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사이버 의식을 기르고 익명성의 장점을 잘 활용하는 건강한 커뮤니티로 조성되는 날이 오길 고대한다.

신가는 수습기자 (yulyull124@skuniv.ac.kr)

오늘의 책

상실 속에서 마주한 깨달음 - 상실의 기쁨 프랭크 브루니



▲ 출처 : 교보문고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프랭크 브루니의 한 쪽 눈이 안개가 스며들 듯 뿌연 지터니 사위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아무런 전조증상 없이 찾아온 이 현상은 곧 뇌졸중으로 인한 영구적인 시력 손상으로 판명났다. 읽고 쓰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그에게 시각 장애는 그 무엇보다 치명적으로 다가왔다. (뉴욕 타임스)의 저명한 칼럼니스트로서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에 둘러싸인 삶을 살던 그였다. 하지만 시력에 관한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온 그를 맞

이하는 것은 차매에 걸린 아버지와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애인이었다. 프랭크 브루니는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상실을 동시다발적으로 마주하게 됐다. 삶은 현재 우리의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급작스러운 상실을 선사하곤 한다. 상실에서 비롯된 고통은 강도, 유형, 빈도에서 각기 다르지 몰라도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점에선 궤를 같이한다. 하지만 프랭크 브루니는 무너지지 않고 삶의 의지를 견고히 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순응하되 굴복하지 않기로 했다. 상실을 변화의 한 형태로 받아들이고 변화된 삶에 적응하고자 노력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를 통해 그는 삶의 궤도를 다시 그려 안정적인 주기를 찾아내고, 퇴보 대신 진보했다. 그는 이 에세이를 통해 심연이 드러워지는 눈에 적응하는 과정을 그리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한다. 상실한 것에 슬퍼하는 대신 곁에 남아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 또한 자신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 혹은 상실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들이 이뤄낸 놀라운 성취를 이야기한다. 이를 공유하며 상실을 대하는 태도를 넘어 삶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범위를 넓혀 이야기를어나간다. 그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와 시야

의 각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혹은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관찰한다. 시각 장애를 얻게 되었지만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는 오히려 선명해진 그였다. 그는 자신에게 들이닥친 일을 그저 장애로 치부하지 않았다. 그에게 시각 장애는 그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삶의 행복한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현미경이자 인생을 거시적으로 보게끔 시야를 넓혀주는 망원경으로 작용했다. 책을 읽으며 필자 본인의 삶에 대해 충분히 돌아보게 됐으며 나를 이루고 내 주변을 이루는 많은 것들의 소중함을 상기하게 됐다. 또한 삶을 대하는 자세, 곁에 있는 것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인생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재정리할 수 있었다. 소위 불행이라 생각되는 것에서 내가 예외일 리는 만무하다. 선택의 여지는 없다. 하지만 그 불행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선택할 수 있다. 삶이 시급한 레몬을 주었을 때 시금치 속에 감춰 있을 것인가,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마셔버릴 것인가는 나의 자세에 달렸다. 앞으로 다가올 삶의 우여곡절을 어떻게 대하고 타파해야 할지 조금의 단서를 얻은 기분이었다.

그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와 시야

전준혁 기자
(nicejackkyu@naver.com)

오늘의 전시

스크린 너머의 공포를 그려내다 - 드림 스크린



리움미술관에서 국내 및 아시아 창작자 26명/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획전이 열렸다. 전시 제목인 '드림 스크린'은 무의식의 영역인 '꿈'과 직간접적인 경험을 나타내는 '스크린'의 합성어인 동시에 스크린 너머로 떠오르는 환상을 의미하는 새로운 말이다. 전시는 스크린을 통해 접하는 경험 속 공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미술관 지하 1층에서 펼쳐지는 전시는 방에서 방으로 이어지는 구성으로, 유기적인 관람을 유도한다. 미로 같은 동선은 젊은 세대가 경험하는 방향, 고립감 등을 나

타내며, 각자만의 길을 찾는 경험을 제시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총 60점의 작품은 보는 이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사유하게 한다. 많은 작품 중 필자가 인상 깊었던 작품을 소개하겠다. 마치 거실이 연상되는 전시장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바퀴 모양의 구조물이 보인다. 이는 프리실라 정 의 '실내 여행'이라는 작품이다. 마찰을 최소화해 회전 운동을 돕는 부품인 '볼베어링'을 형상화한 작품은 균형을 잃을 수 있는 일상에서 부품을 통해 평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거실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집 외부의 정보를 소화하는 볼베어링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필자는 집이라는 내부 공간을 정보소화의 장소로 해석하게 만드는 점이 새롭게 다가왔다.

두 번째는 콜론의 '기계 속의 유령'이다. 어두운 방으로 들어가면 로딩 화면의 스마트폰이 가득 부착돼 있다. 그중 유독 빛나는 한 화면에는 블루스크린이 보인다. 이 작품은 서로를 연결해 주는 디지털 기기가 잠재적인 해악의 원천임을 표현하고, 가상

세계 속 단순 작업을 수행하는 인간과 지적 작업을 수행하는 AI의 역할을 질문한다. 앞서 소개한 설치작품과 달리 스크린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영상 작품도 다양했다. 필자는 헤지케의 '사로스'와 '벤티 엑세스'라는 작품을 시켰다. 약 15분 정도 되는 두 작품을 각각의 방에서 관람했는데, 그 순간만큼은 스크린에 몰입해 해석에 집중했다. 스크린 속 등장하는 큐알 코드를 찍으면 필자의 휴대전화 스크린에서 또 다른 작품이 등장하는 관람 형식이 인상 깊었다. 두 작품 모두 우리가 얼마나 디지털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했다.

전시를 관람하며 느낀 점은 작가들이 스크린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공포의 범위가 다양하다는 것이었다. 또 어둡고 미로처럼 이뤄져 있는 전시 동선이 공포를 선사하는 동시에 서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표현하는 것 같아 새로웠다. 스크린이라는 개념에 관한 생각의 확장을 이루고 싶다면 이 전시를 추천한다.

강예진 수습기자
(jinvd@skuniv.ac.kr)

- 전시기간 : 2024. 9. 5.~2024. 12. 29.
· 전시장소 : 리움미술관 블랙박스, 그라운드갤러리
· 관람시간 : 10:00~18:00 (매주 월요일 휴관, 매표 마감 17:30)
· 관람비용 : 성인만 25~64세 12,000원 / 청년만 19~24세 및 대학원생, 청소년만 7~18세, 시니어 6,000원

오늘의 장소

지하철과 함께 달려요! 국내 1호 러너스테이션 탐방기 -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



▲ 출처 : 서울시

'밴드 볼', '캠핑 볼'에 이어, 최근 '러닝 볼'이 한국을 강타했다. 다인원 러닝 크루의 활발한 활동과 함께 마라톤 대회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달리기 관련 콘텐츠 소비도 늘었다. 러닝에 대한 뜨거운 열풍이 느껴진 걸까? 서울시는 2024년 주요 사업으로 '러너스테이션(Runner Station)'을 내놓았다. 러너스테이션은 '편 시티(Run City)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 공간을 제공합

과 동시에 건강 및 활력 증진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역사 내에 위치한 제1호 러너스테이션은 지난 5월 개관했다. 여의나루역 2개 층(B1 층~M1 층)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 탄생한 이곳은 역내 분위기를 사뭇 색다르게 바꿔놨다. B1 층 '러너스 베이스캠프'에는 물품 보관함과 탈의실, 그리고 파우더룸이 마련됐다. 간단한 준비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미디어 보드를 설치해 이용자들이 다양한 러닝 정보나 준비운동 영상 등을 시청할 수 있게 했다. B1 층에서 한층 올라간 M1 층 벽면에는 기다란 전자 화면이 눈에 띈다. 이 화면에서는 기온과 습도, 바람 및 자외선 세기 등 실시간 기상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격 달리기 전 러너들이 복장과 달리기 계획을 점검하기에 유용할 듯했다. 또한 M1 층에는 여의나루역 2번 출구가 있는데, 해당 출구를 이용하면 도보 4분 이내에 여의도 한강공원 산책로로 갈 수 있다. 화

려한 조명과 운동장 트랙을 연상시키는 계단 디자인은 보고만 있어도 절로 가슴이 뛰어들 것이라든가 달려 나가고 싶었다. 이처럼 신식 편의시설들을 자랑하는 러너스테이션이지만, 몇몇 부족한 부분도 눈에 띄었다. 가장 아쉬운 점은 샤워실의 부재다. 운동 후 간단한 샤워도 못한 채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상상만으로도 찜찜했다. 이와 더불어 유료 물품 보관함의 기준 이용 시간은 4시간, 최소 이용 금액은 2,200원으로 오로지 달리기를 즐기기 위해 1~2시간만 집 보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소 불합리하게 느껴졌다.

지자체의 노력과 러너들의 활발한 피드백으로 러너스테이션이 보여주기식 공간이 아닌, 실용적인 '러닝 메카'로 더욱 사랑받길 희망한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 위치 : 서울 5호선 여의나루역
· 운영시간 : 연중무휴

오늘의 영화

나의 가장 아픈 상처를 마주하다 - 미쓰백 (2018)



▲ 출처 : 네이버영화

어릴 적 학대를 일삼는 부모에게 버림받고 고아가 된 '백상아'는 성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다 전과자 신분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 상아는 비좁고 습한 화

장실 구석에서 학대받다가 도망치려는 '지은'을 마주친다. 과거의 자신과 닮은 지은을 외면하지 못한 상아는 그녀를 집에 데려와 보살펴주기로 한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상아에게 지은을 돌보는 것이 두렵기도 했으나, 그녀의 가족이 돼주기로 결심한다. 지은의 부모는 학대의 흔적이 들끓날까 오히려 상아를 유괴범으로 몰아가지만 결국 경찰에 체포되며 영화는 마무리된다. (미쓰백)은 학대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두 여성이 서로 위로하며 아픔을 보듬어 주는 과정을 따뜻하게 그려냈다.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눈빛으로도 감정이 전달될 정도의 열연으로 영화의 몰입감을 도왔다. 폭력을 불필요하게 자제히 묘사한 점이 이색적인 편이 있으나 영화 속 학대 장면은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며 필자의 분노와 무력감을 자아냈다.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줌으로써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전개가 아닌 상처로 가득한 두 명이 만나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며 함께 성장했기에 더욱 짙은 여운을 남길 수 있었다. 무어라 뚜렷이 정의할 수 없는 그들의 관계, 상아와 지은은 단순한 모성애를 넘어 서로를 위하는 마음만으로 아픔을 치유하고 연대한다. 폭력은 대물림된다. 지은을 학대한 아버지 '일곤' 또한 아동 학대의 피해자였다. 체포된 일곤은 경찰을 향해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땐 아무도 없었잖아"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똑같이 어린 시절 아픔을 겪었으나 지은에게 살아갈 의지를 심어준 상아와는 다르게 일곤은 폭력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다. (미쓰백)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마주하고 피해자를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다소 무거운 주제일지라도 누군가는 겪고 있을 아픔에 공감해 보는 건 어떨까. 이 순간에도 아동 학대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지은이 상아를 만나고 삶을 되찾은 것과 같이 세상 모든 어린이가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

신가은 수습기자
(yulyull1214@skuniv.ac.kr)

오늘의 음악

지나간 영화도 다시 보게 만드는 '엔딩 크레딧 음악'

이미 본 적 있거나 더는 영화관에서 상영하지 않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찾게 되는 영화들이 있다. 결말은 잔잔 눈에 담았고, 남은 건 검은 화면에 흰 글씨뿐인데도 차마 스크린 앞을 떠나지 못한 경험도 있다. 바로 '엔딩 크레딧 음악'의 힘이다. 음악만큼 풍성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또 있을까. 영화는 막이 내려도 영화 음악이 선사하는 여운만큼은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 출처 : 애플뮤직

♪ 〈Warmest Regards (Extended Version)〉 - Half Moon Run

"밝은 면을 보려 노력했어요, 그게 내가 아는 최선이니 그런데 위를 바라볼수록 내가 저 아래 있다는 게 느껴져요"

한순간의 사고로 아내를 잃었지만,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남자가 있다. 영화 '데몰리션(Demolition, 2015)'은 그런 그가 자기 내면을 모조리 분해하고, 다시 조립해 나가는 과정을 비춘다. 영화의 마지막 곡은 남들과는 사뭇 다른 형태로 상실의 아픔을 겪으며 애도의 시간을 보내는 주인공의 내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나른한 기타 사운드 사이로 담담하면서도 서글픈 음색이 스며들 때, 무심히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고장 나버린 그가 드러난다.



▲ 출처 : 애플뮤직

♪ 〈Storybook Love〉 - Mark Knopfler & Willy DeVille

"내 사랑은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죠 하지만 내가 느끼는 감정은 진짜예요"

동-동-울리는 북소리로 중세풍의 곡이 시작된다. '프린세스 브라이드(The Princess Bride, 1992)'는 액자식 구성이 돋보이는 영화다. 할아버지가 감기에 걸려 누워있는 어린 손자에게 낡은 동화책을 읽어주는 장면에서, 동화 속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결연한 복수, 맞서 싸울 용기, 그리고 애절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동화 속에서 행복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이야기가 진정으로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 사랑은 우리를 진정한 삶의 주인공으로 만든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 출처 : 애플뮤직

♪ 〈Aqua〉 - 사카모토 류이치

"....."

평단과 대중 모두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영화 '괴물(MONSTER, 2023)'. 영화의 엔딩 크레딧 곡은 유명 작곡가 '사카모토 류이치'의 유작이 됐다. 세상 모든 괴로움을 씻어주려는 듯 휘몰아치는 폭풍의 격정과 정화를 품고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온다. 말 없는 자연을 닮은 가사 없는 음악의 고요한 울림이 영화 상영시간 내내 괴물과 인간의 경계 앞에서 혼란했던 우리 마음을 깨끗이 씻어준다.

김경민 기자 (anna2467@skuniv.ac.kr)

오늘의 스포츠

오타니 쇼헤이, 야구 역사 최초 50홈런-50도루 기록하다



▲ 출처 : 오마이뉴스

지난 9월 19일, 메이저 리그(이하 MLB) LA 다저스가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3차전 경기에서 20대 4의 압도적인 점수 차로 승리했다. 지명타자로 출전한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 30)는 6타수 6안타 3홈런 10타점 4득점 2도루를 기록하며 선수 경력 최고의 경기를 소화해 냈고,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

오타니 쇼헤이는 이번 경기에서 49, 50, 51호 홈런과 50, 51호 도루를 기록하며 한 정규 시즌에 50홈런-50도루를 기록한 전 인미답의 선수가 됐다. 한 시즌에 50홈런과 50도루를 각각 기록한 선수는 몇몇 있었으나, 50홈런과 50도루를 동시에 기록한 선수는 야구 역사를 통틀어 전무했다. 홈런과 도루는 상호 배반적인 관계에 놓여 있고, 필요로 하는 신체 조건의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스윙을 자아내기 위해서는 단단하고 거구의 체격이 필요하

고, 빠른 속도의 주루를 위해선 날렵한 몸과 빠른 발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번 시즌 홈런 1위를 기록한 에런 저지(뉴욕 양키스, 32)는 10개 남짓의 도루를, 도루 1위를 차지한 엘리 델라 크루즈(신시내티 레즈, 22)는 25개 남짓의 홈런을 기록했다.

극악의 난이도 때문에 그간 50홈런-50도루는 영영 닿을 수 없는 불가침의 영역으로 여겨지곤 했다. 팔꿈치 재해를 이유로 투수 활동을 중단하고 타자로서 전력을 다하는 오타니 쇼헤이라 할지라도 해당 기록 달성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이 팽배했다. 게다가 오타니 쇼헤이는 엄청난 기대감으로 인한 압박과도 싸워야 했다. 오타니 쇼헤이는 지난해 12월, 7억 달러(9,200억 원) 계약을 통해 LA 다저스에 합류했다. 해당 계약은 총액 기준 메이저 리그를 넘어 전 세계 프로 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계약으로 세간을 뜨겁게 달궜다. 그리고 이러한 천문학적인 계약에 오타니 쇼헤이를 향한 어마어마한 기대감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실제로 시즌 초 잠깐 부진이 이어질 때 오타니 쇼헤이를 향한 평가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 훨씬 각박했다. 하지만 오타니 쇼헤이는 꾸준히 홈런과 도루를 적립해 나가며 중국에 다다라 기어코 50홈런-50도루의 고지를 점하여 야구 역사에 남을 대기록을 작성했다. MLB 입성 6년, LA 다저스로의 이적 1년 만에 세운 기록이며 결국 그는 왜 자신이 세계 최고의 스포츠 스타인지 증명해 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타니 쇼헤이는 어디까지나 '재활 중인 투수'라는 점이다. 재활이 끝난 후 마운드에 복귀한 오타니 쇼헤이가 투수와 타자, 일명 '이도루'로서 어떠한 활약을 보일지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오타니 쇼헤이와 그를 필두로 강력한 타선을 앞세운 LA 다저스는 이어지는 가을 야구에서도 놀라운 면모를 보였다. 특히 데이브 로버트 감독의 뛰어난 볼펜 운용이 빛을 발하며 쟁쟁한 경쟁자들을 하나하나 꺾고 최종전에서 뉴욕 양키스와 격돌했다. MLB 최대 인기를 구가하는 두 팀의 대결의 향방을 가른 것은 순간의 집중력이었다. 결국 조금 더 집중력이 좋았던 LA 다저스가 승리하며 4년만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달성했다. 오타니 쇼헤이는 불멸의 기록에 더해 우승 반지까지 손에 넣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야구 선수 반열에 더욱 가까워졌다.

전준혁 기자 (nicejackkyu@naver.com)